雜誌人의 문제의식

白承喆
문학평론가·「일요신문」 편집국장

얼마전에 발간된 89년판「한국잡지총람」이라는 두툼한 책은 국내 잡지계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가 되리라 믿는다. 이 총람은 72년과 82년에 이어 세번째 나온 것으로 근대잡지의 효시라고 하는 육당의「소년」지가 창간된지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나왔다는데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된다. 80년 동안 국내잡지계는 기껏 자신의 일지를 세 권밖에 쓰지 못했다는 게으름과 무관심에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천5백페이지나 되는 큰 분량의 잡지史가 앞서의 주기보다도 빠르게 7년만에 나왔다는데는 잡지인 스스로의 문제의식이나 자각이 그만큼 자라났다는 점에서 위안도 되었다.

잡지의 현황과 자료를 집대성한「한국잡지총람」의 여러 내용 가운데에 필자의 눈을 끈 것은 참고자료로 수록된「건의·결의문」부분이었다. 무엇을 어디에 건의했고 무엇을 결의했는가… 그것은 곧 잡지계의 절박한 현실이 무엇이며 잡지인들의 문제의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결의에 속하는 것으로는 청소년선도결의와 북한의 금강산댐건설 결사반대결의, 대기업의 문어발식 잡지발행 반대결의가 있고 건의사항으로는 제3종우편물인가부활건의, 부가세 공제건의, 잡지기자취재수당 소득공제건의, 신문과 잡지의 兼營금지결의, 잡지발행업의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건의 등으로 되어 있다.

모두가 일리가 있고 잡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이다. 그러나 되새겨보면 이런 생각도 들었다. 결의나 건의의 안건으로서는 좀 뭣한 것이 아닌가, 사안의 비중도 그렇거니와 문제해결의 방향도 잘못 잡혀진 것이 아닌가. 결국 이런 문제의식, 이러한 해결자세가 오늘의 잡지문화를 영세하게 만든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씁쓰레했다.

어느 해인가 '잡지의 날' 기념행사에 주무부서의 관련국장이 참석한 것을 두고 영광이니 어쩌니 하며 저자세(?)였던 진풍경을 보고 잡지인들의 의식이 어디에 와있는걸까 새삼스럽게 생각해본 적이 있다. 이점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몸담고 있는 잡지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풀어나가려는 자각적 자율적 인식보다는, 당국의 힘에만 의존하려는 종속주의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잡지문화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 많은 잡지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적자에 허덕여야 하는 실정은 당국에 매달리려는 잡지인 스스로의 의타성에서 크게 비롯된다.「개벽」이나「사상계」혹은「뿌리깊은 나무」와 같은 힘과 문화를 떨쳤던 잡지는 결코 '건의' 차원의 정신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우산 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80년의 국내 잡지역사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했는가를 냉철하게 되새겨보아야 한다.

홀로 서지 못하면 서지 않느니만 못하다는 높은 도덕률이 뒤따르지 않고는 잡지문화가 지니고 있는 우중충한 분위기를 벗어나기 힘들다. 이제부터라도 잡지는 보호받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 잡지저널리즘의 생산과 창조는 스스로의 역량과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강조할수록 좋다.

출판저널
1989년 3월 5일 제37호
격주간·매월 5,20일 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발제논문 2 '종합지 지향'에서 '개성화'로 탈바꿈을/李重漢
—한국의 잡지문화, 그 발전방향
좌담 4 오늘의 우리 잡지문화를 진단한다
—이중한/鄭丙圭/鄭晋錫/허 술
한국의 잡지 8 '전성기' 구가하는 한국의 잡지계
—국내 잡지 발행현황과 동향
잡지 리뷰 12 사회과학 대중화에 새 지평 개척/박형준
13 양적 풍요 속에 판도변화 조짐/이윤택
14 野史的 정치비화에 편중된 왜곡성/李範洙
15 왜곡된 女性像, 문제의식이 없다/박혜란
16 음악문화의 모랄, 평론의 틀 제공/민경찬
17 새시대 흐름에 걸맞는 미술저널 모색/서성록
18 개화기 문턱에 선 과학저널리즘/박택규
19 비뚤어진 선정주의적 대중문화/具賢書
20 국내서 발행하는 외국어잡지들
잡지인 칼럼 21 남자 독자들이 더 많은 여성지—「샘이 깊은 물」/설호정
공연문화의 보편화 위해 노력—「객석」/李相萬
22 지역특수성 살려 '한정성' 극복—「월간 藝鄕」/李 勲
사회변혁에 지속적 관심 가져—「현상과 인식」/오세철
23 첨단 디자인을 선도하는 긍지—「월간 디자인」/이영혜
'고여 있음' 보다 '움직임' 있는 세계를—「現代詩學」/정진규
세계의 잡지 24 美國의 대중문화와 잡지/김호근
—거대잡지의 독과점 벗어나 전문화·세분화 시대로
29 '昭和시대' 종막 따라 종합지 활기/高廷基
—'雜低書高' 현상 속의 일본 잡지계
30 知性과 대중성의 절묘한 조화
—난숙한 문화전통 속의 유럽 잡지계
32 대중지 줄고 技術誌 수요 증가
—외국잡지의 국내 유통시장을 살핀다
자료 34 국내 주요 잡지 일람
33 표지의 말
44 신간안내
46 신간목록
데스크 칼럼 48 稅金으로 책 사는 나라/李璟薫
48 독서퀴즈

표지 사진/주명덕